

1960년대 ‘고바우영감’과 월경(越境)하는 비주얼텍스트*

연윤희**

1. 서론: 기행문의 시대, 국경 넘는 ‘고바우영감’
2. <고바우영감>의 이국 체험기
3. 발전한 도시와 서민의 풍속
4. 이질적 이국의 정취, 이방인의 거리두기
5. 결론

국문요약

시사만화가 김성환은 1962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 홍콩과 대만, 일본으로 “동남아시아풍류여행”을 떠난다. 『동아일보』의 특파원 자격으로 여행을 떠난 그는, 7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총 29편의 기행문을 연재한다.

1955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성환의 <고바우영감>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를 질타하고, 부패정권 하에 놓인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담아냈다. <고바우영감>으로 오랫동안 독자들과 소통했던 김성환의 감각은 기행문에서도 발현된다.

이 글에서 김성환의 기행문과 기행을 소재로 한 비주얼텍스트에 주목

* 이 글은 2014년 2월 17일 베트남 흥방국제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 한국-베트남공동 한국 언어·문화·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김성환의 기행문과 아시아 표상」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하는 이유는 첫째, 〈고바우영감〉으로 오랫동안 독자들과 소통했던 김성환의 감각이 기행문에서도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바우영감〉이 서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풀어내듯, 김성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독자의 시각에서 기록한다. 둘째, 김성환은 4컷 만화 〈고바우영감〉과 삽화, 즉 비주얼텍스트로 독자들에게 이국의 모습을 재현한다. 김성환은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를 연재하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고바우영감〉을 연재하는데, 김성환은 해외여행 준비부터 귀국까지, 자신이 겪은 해외여행 과정 중 발생한 에피소드를 고바우영감의 발화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때, 고바우영감의 유머러스하고 엉뚱한 행동들은 여과 없이 표현되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시킨다.

기존의 기행문이 언어텍스트로 이국을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김성환의 기행문은 비주얼텍스트를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는 점이 다른 기행문과 변별점을 가진다.

1960년대부터 다양한 기행문이 출판되었지만, 대다수의 기행문은 독자들의 현실에 조응하지 못했다. 반면, 김성환의 기행문은 대중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술하고 서민의 시각에서 이국의 모습을 풀어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바우영감’만의 해학과 풍자로 담아낸 비주얼텍스트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동안 낯선 단어였던 ‘해외여행’과 멀고 먼 나라로 그렸던 동아시아의 심상지리를 재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시사만화가 김성환, 〈고바우영감〉,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 기행문, 비주얼텍스트)

1. 서론: 기행문의 시대, 국경 넘는 '고바우영감'

시사만화가 김성환은 『동아일보』의 특파원 자격으로, 1962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 홍콩과 대만, 일본으로 '동남아시아풍류여행'을 떠난다. 그는 7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아일보』에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총 29편(홍콩 11편, 대만 7편, 일본 11편)의 기행문을 연재한다.¹⁾ 흥미로운 것은 다른 기행문과 달리, 기행문과 함께 삽화를 첨가하여 이국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홍콩, 대만, 일본 여행 중 남긴 김성환의 기행문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와 기행문에 함께 삽입된 삽화 등, 비주얼텍스트에 표상된 아시아를 살펴보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국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고바우영감'은 1955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4컷 만화의 캐릭터다. 1958년 1월 23일 〈고바우영감〉은 경무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이 일화로 인해 〈고바우영감〉은 세간의 화제가 된다. 이 에피소드는 일명 '경무대똥통사건'이라 이름 붙여졌고, 필화사건을 겪기도 하였다.(그림 1) 〈고바우영감〉은 몇 차례의 필화사건을 겪으면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서민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자리하게 된다. '경무대똥통사건'처럼, 〈고바우영감〉은 매호마다 권력에 킁박받거나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을 에피소드의 중심에 놓는다. 주인공인 고바우영감은 당대 사회를 난세라 한탄하고 좌절하기 보단 재치와 기지로

1) 김성환은 『동아일보』에 연재된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를 엮어 『인간동물원』(1965, 장학당)을 출간한다. 이 단행본은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에서 신지 않았던 여행의 후일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성환의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를 주 텍스트로 삼고, 필요에 따라 단행본 『인간동물원』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1. 『동아일보』
(1958.1.23.)

시대를 조우한다. 이때, 고바우영감의 엉뚱한 행동의 기저는 권력에 대항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있다.

〈고바우영감〉은 2개의 만화 장르, ‘시사만평’과 ‘코믹스’를 절충하고 있다. ‘시사만평’의 경우, 한 컷 안에 당대의 정치를 풍자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과 정보습득을 요한다면, ‘코믹스’의 경우, 도상만으로도 이해가 쉽고 유머와 오락성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수월한 장르이다.²⁾ 〈고바우영감〉은 ‘코믹스’의 해학성을 기본으로, 시사만평의 풍자성이 가미되어,³⁾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다.

1950년대 ‘고바우영감’이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 캐릭터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바우 노래’가 불렸고, 소규모 생필품, 복덕방, 기타 영세업소 등 ‘고바우’를 상호명으로 내걸었으며, 1958년에는 ‘고바우영감’을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져 전국에 개봉되었다.⁴⁾ 위의 사례에서 미루어볼 때, 당대 서민

2) 서은영,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112쪽.

3) 손상익에 따르면, 〈고바우영감〉은 『동아일보』 연재초기 1년여 동안 생활주변소재를 택한 명량만화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1956년 이후 자유당 일당독재와 이승만의 장기집권야욕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서부터 〈고바우영감〉은 민감한 현실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 만화사 연구 : 풍자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209쪽.

4)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 만화사 연구 : 풍자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209쪽.

들 사이에서 ‘고바우영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만화가 김성환이 기행문을 연재한 연유는 무엇일까? 당시 해외 펜팔인구의 급증과 출판시장의 변화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다.

1950년대 말, 정부가 국민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해외 펜팔과 국제 편지 쓰기를 권장하면서 시작된 해외 펜팔은 1960년대 초반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⁵⁾ 이때, 해외 펜팔 회원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민”, 즉 평화애호가로 미화되었고(그림2), 그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국제 집배원은 “한국의 풍정과 우의를 전달하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국민 영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⁶⁾



그림 2. 「성탄신년 대의 메세지 모집운동 국제 펜팔호남지방협회서」, 『동아일보』, 196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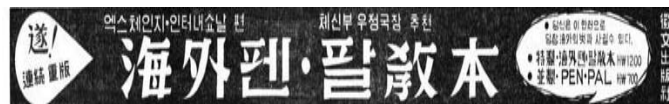


그림 3.(광고) 해외 펜팔교본(『경향신문』, 1963.3.19.)

5) 1962년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국제문화연구원은 2-3년 전부터 펜팔운동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3만 명의 회원을 유치하였고, 회원으로는 중·고등학생, 교사, 회사원, 노인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나날이 번져가는 펜팔운동」, 『동아일보』, (1962.10.10.)

6) 「뿌려질 한국의 우의」, 『경향신문』, (196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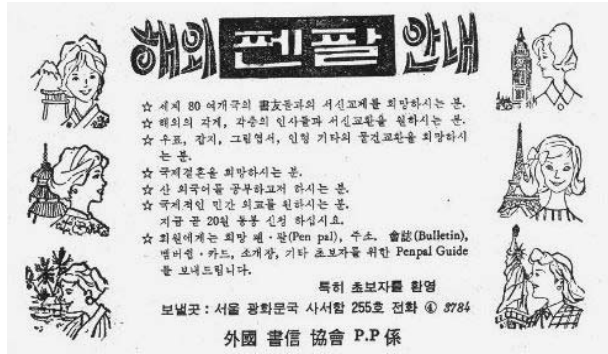


그림 4. (광고) 해외 펜팔 안내, (『명랑』, 1965.1.)

1963년에는 해외 펜팔의 인기로 펜팔 교본이 신문광고로 등장하기 시작했고(그림3), 1960년대 중반부터 대중월간지 『명랑』의 지면에 해외 펜팔 관련 광고가 지속적으로 실렸다는 점에서 당시 해외 펜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그림4) 정리하면, 영어교육을 위해 시작한 해외 펜팔은 국민들에게 국경 밖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투영되었으며, 기행문으로 전이된 것이다.

1960년대 대중독서물의 변화로는 기행문이 대중독서물로 출판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 시작은 미국 유학생 김찬삼으로부터 비롯된다. 1961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59개국 무전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동아일보』에 『세계일주 무전여행』을 연재한다. 당시 신문 독자의 지지로 그는 단행본 『세계일주 무전여행』을 출간하였고, 이 기행문은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다.⁷⁾ 김찬삼을 시작으로 기행문이 대중적 읽을거리로 자리하자 다양한 기행문이 출간되었는데,⁸⁾ 이러한 출판시장의 변

7) 김찬삼의 기행문은 첫 출판되자 20판이 나갔고, 1981년에는 전집물로 증보돼 매년 3~4만 권이 팔리기도 하였다. 이임자, 『통제 속 출판정착기』,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182쪽.

화는 1970년대까지 이어간다.⁹⁾

이와 같이, 1960년대부터 국경 밖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과 세계성의 욕망을 펜팔과 기행문의 사례에서 목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기존의 기행문로부터 독자들의 증폭된 국제적 감각과 세계성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획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고바우영감> 작가 김성환의 기행문 『고바우, 동남야를 가다』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환은 기행문 연재와 함께 자신이 경험한 해외여행 준비과정을 <고바우영감> '해외여행'편에서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고바우영감> '해외여행'편을 통해 순탄치 않은 김성환의 국경 넘기를 엿볼 수 있다.

1962년 6월 국제관광공사가 발족하고, 1963년에 도쿄와 뉴욕에 처음 해외관광 선전사무소가 설치·운영된다.¹⁰⁾ 김성환이 해외여행을 떠난 1962년은 한국의 관광산업이 태동한 시기로, 한국사회에서 '관광' 또는 '해외여행'이란 어휘조차도 생소했다. "해외항공여행하시는 분에게 여권 수속, 외환수속, 비자수속"까지 안전하게 대행해준다는 여행사 광고 문구는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을 보여준다.(그림5) 소수의 계층에

8) 1960년대 기행문의 생산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로는 우정덕과 김미영의 연구가 있다. 두 논문에서는 1960년대 대중독서물로 기행문이 정착한 시기를 1960년대부터라고 논한 바 있다. 우정덕,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 고찰 :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5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0;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9) 김미영은 김찬삼의 기행문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자, 이어령의 『흙에 저 바람 속에 : 이것이 한국이다』(현암사, 1963)과 『서양에서 본 동양의 아침』(갑인출판사, 1974), 천경자의 『남태평양에 가다』(서문당, 1973)와 『아프리카紀行 畫文集』(일지사, 1974), 손장순의 『나의 꿈, 센터멘탈저니』(문리사, 1977) 등 다양한 기행문이 출간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10) 임범중·이혁진·윤병국 공저, 『현대관광』, 삼광출판사, 2006, 49쪽.



그림 5. 해외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담한다는 국제여행사 신문광고
(『경향신문』 1961.3.5)

한정된 것이겠지만, 1960년대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들은 “일주일동안 외국을 갔다 오기 위해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공보부를 도합 열두 번이나 빙빙” 돌고, “외무부 출입국 사무는 법무부, 병사관계는 국방부, 추천관계는 각부장관” 등 서류를 들고 다녀야지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¹¹⁾

이러한 수속과정에서 오는

불편과 불만을 줄이고자, 정부는 “해외여행 수속이나 서류수속 같은 민원서류에 귀찮게 따라붙는 부대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한다고 발표”하지만,¹²⁾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고바우영감>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수속과정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고바우영감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터무니없는 수속절차를 밟아야하는 해외여행 수속과정을 지켜보며, “장님시계”, “여대생 교복”, “구공탄 운반인 세수”에 비유한 바 있다.(그림6) 김성환은 <고바우영감> ‘해외여행’편을 통해 해외여행을 앞두고 직접 경험한 과정을 담아낸다. 고바우영감은 국방부와 법무부를 오가며 정신없이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나 고바우영감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들고 온다. “도대체 어디다 내는 서류일까?”(그림7) 고민하던 그는 딸이 와서야 수속 서류가 아닌 학교 시험지라는 것을 알게 된

11) 『선수치는 최고위원들』, 『경향신문』, (1962.8.27.)

12) 『청구나 관망이나 양론』, 『경향신문』, (1962.3.26.)



그림 6. 『동아일보』
(1962.6.29.)



그림 7. 『동아일보』
(1962.7.25.)

다. 이 에피소드는 고바우영감의 엉뚱한 행동에서 웃음을 유발하는데, 공문서를 쉽게 해독하지 못했던 일반 대중들을 대변한 것이다. 김성환은 <고바우영감>의 발화를 통해 “혁명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수속 서류를 학교 시험지로 조롱한 것이다.¹³⁾

13) 여행에 대한 수속 절차를 완화를 공표했던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절차를 더 강화시킨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신중히 검토되어 있으나 민간인 여행은 국가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외화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태반이다.”라는 이유를 붙여, “민간인 해외여행허가제도의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1963년 8월 2일 “공무원해외여행 통제방안 의결”을 내세워 일반인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공무원해외여행 통제방안 의결』, 『경향신문』, 1963.8.22.)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이 글에서 김성환의 이국체험이 담긴 비주얼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바우영감>으로 오랫동안 독자들과 소통했던 김성환의 감각에 있다. <고바우영감>이 서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풀어내듯, 김성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독자의 시각에서 기록한다. 또한 고바우영감의 유머러스하고 엉뚱한 행동들이 ‘해외여행’편에서도 여과 없이 표현되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시킨다.

둘째, 김성환은 4컷 만화 <고바우영감>과 삽화, 즉 비주얼텍스트로 독자들에게 이국의 모습을 재현한다. 독자들은 다른 기행문에서 접하지 못한 비주얼텍스트로 아시아를 사유하고 감각한다는 점이다.¹⁴⁾ 언어 텍스트가 언어 구성을 통해 독자와 만났다면, 비주얼 텍스트는 시각적 요소로 독자와 상호작용하게 된다.¹⁵⁾ 기존의 기행문이 언어텍스트로 이국을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김성환의 기행문은 비주얼텍스트를 첨가한다. 독자들은 비주얼텍스트에 내포된 이국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봤듯, 두 가지의 시각으로 김성환의 비주얼텍스트를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고바우영감> ‘해외여행’편에 실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고바우영감’만의 비주얼텍스트를 살펴 볼 것이다. 이때, <고바우영감>은 “다른 문화에 나타난 차이를 탐구하고자 하는 충동이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즉 “문화적 호기심”을 식민화를 통해 드러낸다.¹⁶⁾

두 번째로는 기행문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에 기록된 홍콩, 대만, 일본에 대한 김성환의 인상기와 비주얼텍스트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14) 이 글에서 비주얼텍스트는 김성환의 4컷 만화 <고바우영감>과 기행문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에 실린 삽화를 말한다. 앞으로 전개될 4컷 만화와 기행문의 삽화는 비주얼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할 것이다.

15) 김은정, 『‘위험’ 주제 보도사진의 비주얼 텍스트 유형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42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5, p.40.

16)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국민국가화는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의 영역 범위 밖에 존재하는 차이를 만들면서, “국민국가화에 의해서 국민국가의 범위가 정의되고 국민국가의 특성이 분명”하게 만들었다.¹⁷⁾ 김성환의 기행문은 이러한 국민국가의 범주 안에서 이국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은 ‘상향식 이국취향’과 ‘하향식 이국취향’이 내포된 화자의 양가적 시각을 목도하게 된다.¹⁸⁾

〈고바우영감〉과 달리, 기행문은 화자인 김성환의 목소리가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지금까지 ‘고바우영감’을 매개로 작가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면, 이 기행문에서는 시사만화가 김성환의 고백적 발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바우영감〉의 이국 체험기

김성환은 기행문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를 연재하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고바우영감〉을 연재한다. 〈고바우영감〉의 ‘해외여행’편은 해외여행 준비부터 귀국까지,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고바우영감’식 웃음과 해학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독자들에게 고바우영감만의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7)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18)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21쪽.

다. 비행기를 처음 탄 고바우영감은 비행기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빨리 가자”하고 외친다.(그림9) 지금의 독자라면 이 장면을 유머로 받아들이겠지만, 해외여행에 익숙지 않은 당시 독자들에게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낯선 감각이었다. 1989년 ‘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외여행은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된 고급 여가문화였다. 따라서 비주얼텍스트에 나타난 국경을 벗어난다는 생경함과 언뜻 계산되지 않는 비행기의 속도감을 체감한 독자는 짐작한 건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근대와 함께 발명된 기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과 이를 통한 여행, 그리고 영화의 등장은 시각 체험을 유례없이 확장시키면서 풍부한 볼거리(spectacle)들을 제공하였고 대중들을 구경꾼(spectator)으로 만들어 놓았다.”¹⁹⁾ 근대인들이 기차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고바우영감>에 등장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비행기는 국경 밖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국민국가와 민족이라는 범주를 재배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영토적 국민국가화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차이, 다른 나라와 종족의 정체성, 또는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위한 잠재적 공간을 초래”한다.²⁰⁾ <고바우영감>은 국경을 경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국민들의 일상에 집중하는데, 고바우영감의 식문화 체험은 “국민국가의 경계 너머의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다.²¹⁾

19) 김중철, 『근대 여행과 활동사진 체험의 '관람성(spectatorship)' 연구-1920~30년대 기행문 속 활동사진의 비유적 쓰임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제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331쪽.

20)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21)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그림 10. 『동아일보』
(1962.8.6.)



그림 11. 『동아일보』
(1962.8.13.)



그림 12. 『동아일보』
(1962.8.20.)

홍콩에 도착한 고바우영감은 바나나 10원어치를 산다. 그는 호텔방 전체를 메울 만큼 엄청난 양의 바나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진다.(그림10) 1961년부터 바나나는 사치성 과일로 분류되어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었다. 1962년 6월이 돼서야 외래품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바나나는 다시 판매된다. 당시 한국에서는 사과나 배는 개당 8원이었다. 고바우영감이 바나나를 사기 위해 10원을 내민 것은 바나나에 익숙지 않았던 서민들에게 현지 사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비주얼텍스트에 묘사된 고바우영감의 행동에서 바나나를 고급과일로 간주했던 당대 서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대만의 망고를 대하는 고바우영감의 모습은 바나나만큼 흥미롭다. 고바우영감은 식당에서 망고를 주문하는데, 망고가 나오고 씨 뺀는 그릇

이 함께 나온다. 망고의 모양을 씨 뺀 그릇에 비유하면서 망고라는 과일
일을 비주얼텍스트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그림12) 독자들은 한국에
서는 귀한 과일인 홍콩의 바나나와 대만의 망고가 현지에서 일반 서민
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것을 고바우영감의 비주얼텍스트로
간접 경험한다.

〈고바우영감〉은 곤충과 원숭이가 식재료가 사용되는 대만의 식문화
를 재치 있게 풀어낸다. 고바우영감은 식사 중 입에서 입으로 곤충들이
튀겨 날아다니자, 보호대를 꺼내 얼굴을 가린다.(그림11) 한국에서 낯선
식재료인 곤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살아있는 곤충처럼 묘사한
것이다.

〈고바우영감〉은 “국민국가의 경계 너머의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을 식문화 체험으로 재현한 것이다.²²⁾ 김성환은 일본에
서 경험한 식문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식재료가
비슷한 일본보다는 이국성이 잘 나타나는 동남아의 식문화를 통해, 지
리·환경에 따른 이국의 식문화와 그 나라만이 가진 고유의 민족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비주얼텍스트에 재현된
이국의 식문화는 독자들에게 그 민족과 국가를 상상하는 기제가 된다.
독자들은 비주얼텍스트에 재현된 식문화에서 이국의 모습을 상상하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재현된 현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공유
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시각적 증거였기 때문이다.”²³⁾

이와 같이, 〈고바우영감〉의 ‘해외여행’편은 해외여행에서 발생한 고바
우영감의 에피소드를 비주얼텍스트로 재현한다. 언어텍스트가 충족시

22)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23) 바네사 R. 슈와르츠,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50쪽.

켜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주얼텍스트로 채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삽화의 언어적 묘사와 (인쇄된)언어의 삽화적 묘사”가 겹쳐지면서 낯선 이국의 모습을 스크린의 이미지처럼 상상하게 된다.²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성환은 〈고바우영감〉 ‘해외여행’편을 통해 해외여행 중 발생한 에피소드를 ‘고바우영감’식으로 재해석한다. 비주얼텍스트로 발화된 고바우영감의 유머러스하고 엉뚱한 행동들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기존의 독자들이 〈고바우영감〉을 통해 한국의 정치·사회를 해학과 풍자로 즐겼다면, 〈고바우영감〉의 ‘해외여행’편을 통해 독자들은 낯선 이국에 ‘고바우영감’식의 웃음과 재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3. 발전한 도시와 서민의 풍속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의 첫 여행지는 홍콩이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김성환은 세계 각국의 인종이 모인 혼종성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범죄 도시로 홍콩을 상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신문매체를 통해 노출된 홍콩은 마약과 밀수 등의 국제적 범죄 조직이 들끓는 도시로 소개되었고,²⁵⁾ 한·홍 합작 영화에서 홍콩은 폭력조직의 활동 무대였

24) 테드 휴즈, 『시각성과 식민지성 근대』,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69쪽.

25) 당시 일간지에서 홍콩은 주로 국제 범죄가 들끓는 곳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에 약 1만 5천 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홍콩 일본 북한 등지에서 밀수입 된” 『밀수루트 대부분이 향항과 일본』, 『경향신문』, 1958년 3월 24일 3면, “십여 차례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마약 밀수입” 『4명을 구속기소 국제 아편밀수사건』, 『경향신문』 1958년 4월 8일 2면, “미군용기를 이용한 국제마약밀수단 일당 6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한국인 3명 중 5명이 체포되고 밀수 『물품』 2천만환어치도 압수

다.²⁶⁾ 그보다 앞서 홍콩에 방문했던 국회의원 이병주 역시 중공의 피난민들로 번잡한 거리와 강탈이 성행하는 “중국식 테러terror와 중국식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범죄의 도시로 묘사한 바 있다.²⁷⁾ 이는 당시 대중들에게 홍콩을 국제적 도시라는 이국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인종이 충돌하는, 범죄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성환은 독자들에게 “세계 각국의 도둑놈들과 사기꾼들만 모인 곳으로 알았다간 큰 오해”라고 강조한다.²⁸⁾ 그는 홍콩을 국제도시라는 선입전에 복잡하고 무절제한 공간이라는 선입전을 바꿀 것을 독자들에게 피력한다. 비주얼텍스트에 표상된 홍콩은 교통순경의 절도 있는 수신호로 통제되는 거리와 질서 있게 이동하는 차들이다.(그림13)



그림 13. 『홍콩의 교통순경』,
『동아일보』, (1962.7.10.)

당시 한국에서는 교통질서 위반 사건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²⁹⁾ 연일 일간지 사회면을

되었다.” 『마약 밀수단 검거』, 『동아일보』 1959년 4월 21일, 3면, “무역상을 가장하고 홍콩 대만 천진 서울 등을 무대로 하여 국제간첩으로 암약해오던 중공간첩단 일당을 일망타진하였다.” 『중공계 국제간첩단 일당타진』, 『동아일보』, 1961년 7월 3일 3면.
26) 한국에서 한·홍 합작 영화로는 1958년 전택이 감독의 〈애정무한〉이 개봉되었고,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갱스터 영화였던 1957년 정창화 감독의 〈망향〉과 연애와 액션을 적절히 가미한 1959년 권영순 감독의 〈언제까지나 그대만을〉이 홍콩과 마카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홍 합작물이라는 이름으로 관객에게 선보였다. 오영숙, 『신생 독립국의 자기인식과 아시아 상상—코스모폴리타니즘과 민족주의 사이의 한국영화 (1957~1960년대)』, 『대중서사연구』 제16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0, 291쪽.

27) 이병주, 『巴里紀行』, 철야당, 1957, 16쪽.

28)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홍콩의 교통순경』, 『동아일보』, (1962.7.10.)

29) 국내 교통 관련 기사로는, 『전차가 빛은 교통사고 신호 무시코 달려』,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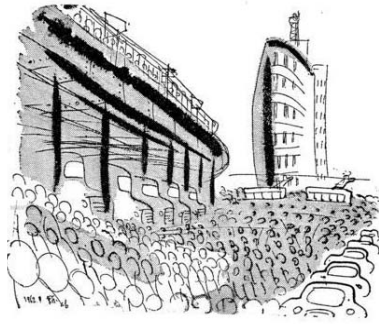


그림 14. 『동경의 교통지옥』,
『동아일보』, (1962.7.31.)

장식했던 국내 교통법규 위반 기사에 익숙했던 그에게 홍콩의 모범적인 운전자의식은 낮은 풍경이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는 홍콩을 발전한 선진국이라 간주한다. 홍콩에 대한 김성환의 서술에서 낭왕이 제시한 ‘상향식 이국취향’을 엿볼 수 있다. 홍콩의 빌딩과 교통질서를 기술할 때, “선진국에 대한 약소국

가의 동경과 호기심”을 드러내는데, 이때 그의 서술은 “자기비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³⁰⁾ 김성환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홍콩의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에서 자국의 현실을 상기시키는데, 한국의 낮은 시민의식을 그를 위축시킨 것이다.

한편, 김성환은 동경의 거리를 4·19에 거리를 나온 군중으로 비유하며 “교통지옥”이라 말한다. 비주얼텍스트에 묘사된 동경은 인파와 도로를 메운 차들로 빈틈없이 빼곡하다.(그림14) 동경에서 “인간 또 인간의 머리를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났다고 토로한다. 비주얼텍스트에서 보여주듯, 인산인해를 이룬 동경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지옥’을 방불케 한다. 일본의 복잡한 도로사정은 <고바우영감>의 ‘해외여행’편에서도 언

1961년 3월 13일 3면, “하루 평균 3명이 교통사고를 죽고 2명이 다친 셈...” “운전수 잘못이 631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경고문을 발표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및 운전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중벌”, 『교통위반차량에 중벌주의』, 『동아일보』, 1961년 5월 20일 3면; 『하루 3명 죽는 셈』, 『경향신문』, 1961년 3월 22일; 『약 사백 건 적발 교통규칙위반차량』, 『동아일보』, 1961년 5월 22일; 『교통규칙 위반한 시내버스 3백대를 즉심에』, 『경향신문』, 1962년 4월 4일 3면.

30)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21쪽.

급한 바 있다. 고바우영감은 복잡한 동경을 헤매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 그에게 만나는 일본인 마다 길을 묻자, 고바우영감은 당황한 나머지 “앗!”하고 감탄사를 내뱉는다.(그림15) 이방인인 고바우영감에게 도리어 길을 물어올 만큼 일본인조차 자신이 사는 곳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도시 발전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인간의 생활을 운택하게 한 결과, “현대 이전의 제도와 환경을 파괴”하면서 “진정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일본에서 목도한 것이다.³¹⁾ 그는 일본이 패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서구화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그림 15. 『동아일보』 (1962.7.25.)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기행문에서 일본은 낮에는 상냥하고 친절한 국민성을 보았다면, 밤이 되면 악독한 하층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기록한다. 시골서 온 손님에게 택시기사들은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고, 10대 학생들은 학업은 뒷전이고 야구장이나 실내 권투장의 암표를 팔기 위해 뒷골목을 전전한다.(『골치거리 10대』, 『동아일보』, 1962.7.31.), 밤마다 상점은 야쿠자들로 붐비고, 주인들은 제대로 음식 값을 받지 못한다.(『동경의 새벽 2시』, 『동아일보』, 1962.8.6.) 일본의 대판성에는 비싼 호텔 값을 치를 수 없는 젊은이들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다.(그림 17)

이처럼, 비주얼텍스트에 담긴 일본의 모습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복

31) 마살 버먼,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11, 4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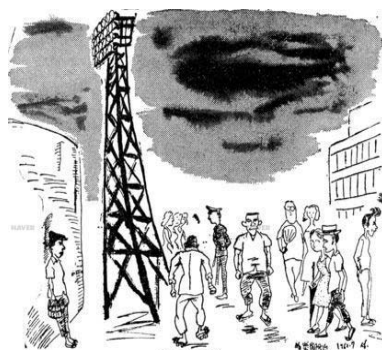


그림 16. 『後樂園 주변의 저녁光景』,
『동아일보』, (1962. 8. 2.)



그림 17. 『대판성』, 『동아일보』,
(1962. 8. 9.)

잡한 거리, 윤리성이 타락한 밤거리 등 어두운 이면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도시의 자본화라 지적한다. 그는 도시의 발전이 일상의 편의성을 준 반면, 하층민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홍콩에서도 마주한 바 있다.

국제도시의 화려함과 자본화의 부작용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곳이 홍콩이다. 김성환은 ‘샘판’(sampan) 위에서 손님을 맞는 상인들에게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홍콩의 야경과 ‘샘판’의 낭만, 그리고 이국적 정취를 느낀다. 그러나 낭만도 잠시뿐, 그가 카메라를 꺼내자, 공짜로 사진 찍는 것에 못마땅한 상인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꺼버린다. 그는 관광객들에게 사진 한 장 내주지 않는 그들의 야박한 생활에 씁쓸함을 느낀다.(그림18) “동양의 진주라고 일컫는 홍콩을 분명히 돈 있는 자에게는 극락세계요 돈 없는 자에게는 생지옥”이라 기술한다.³²⁾ 나이트클럽이나 레스토랑의 웨이터들이 받는 팁 정도를 벌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이들 또한 홍콩의 모습이다. 그곳은 세계의 자본과 인

32)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가다』 『샘판』과 『꾸냥』, 『동아일보』, (1962.7.17.)

구가 집중되는 도시지만 어느 도시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했다. 법으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난이라 여겼던 것일까. 그는 “최신식 빌딩의 바로 뒷골목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빈곤의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홍콩의 실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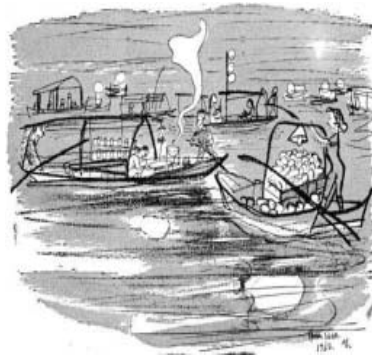


그림 18. 「『샘팬』과『꾸냥』下」,
(『동아일보』, (1962.7.17.)

피력한다. 개발의 결과가 엄청난 사회적(폭력적)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개발이 빚어낸 성취는 이상적으로 표상된다.³³⁾ 개발의 부작용은 변두리로 떠밀려 하층민들의 삶에 흡수된다. 화려한 홍콩의 반대편, 변두리의 하층민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국제도시의 화려함과 대조적인 홍콩의 하층민 역시 홍콩의 모습이였다. 그는 홍콩과 일본이 도시화, 산업화될수록 하층민의 생활은 더욱 황폐화되어 간다는 것을 목도한다. 김성환이 <고바우영감>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홍콩과 일본의 도심에 가려진 하층민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 것이다.

4. 이질적인 이국의 정취, 이방인의 거리두기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에서는 대만을 홍콩, 일본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만에 도착한 첫날 김성환은 대만의 이국적인 정취

33)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교양인, 2013, 32쪽.

를 감지한다. 그는 장제스 총통의 동상이 제압하는 대북의 거리와 영화관에서 대만 특유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홍콩에서도 그러하듯,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의 생활과 표정을 담기 위해 그는 영화관이나 상점을 찾곤 했다. 그리고 대만의 영화관에서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전형적인 ‘반공국가’의 단면을 발견한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나타나는 장제스 총통의 모습과 반공선전표어로부터 대만은 “민주국가를 표방하되 실질적으로 일가독재(一家獨裁)”라 피력한다.³⁴⁾ 이러한 태도는 1956년 ‘한국문화친선단’이 남긴 기행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거부감이었다. 김성환보다 앞서, ‘한국문화친선단’은 대만 반공아세아연맹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했다. 1956년 문인 및 신문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친선단’은 대만에 대한 감상과 소감을 남겼고, 이들의 글을 묶어 기행문으로 출간한다. 언론인 송지영은 대만에 대한 인상을 모범적인 반공국가로 묘사하며, 환대하는 대만인을 “반공하는 자유민”이라 칭한다.³⁵⁾ 정비석은 대만의 실상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인테리들이 대만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술회하면서, 이 기행문을 통해 독자들이 대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³⁶⁾ 이들의 기행문에서 대만은 반공주의 표방과 함께 번영한 이상적 국가로 표상된다.

이승만 정권 하에 “폭력적·법적·교육적·공론적·심미적 등등의 다양한 경로로 반공을 주입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새 스스로 ‘반공하는 삶을 욕망’하였듯³⁷⁾, 그곳에 자리한 지식인들 역시 예외일 순 없었

34)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 落穂餘滴』, 『인간동물원』, 장학당, 1965, 53쪽.

35) 송지영, 『自由中國의 今日』, 『自由中國의 今日: 臺灣紀行』, 春潮社, 1958, 25쪽.

36) 정비석, 『汚吏도 먼지도 없어진 臺灣』, 『自由中國의 今日: 臺灣紀行』, 春潮社, 1958, 50쪽.

37) 고길실, 『반공하는 삶』,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엘피, 2005, 88쪽.

다. 대만인의 반공의식에 감흥을 느낀 그들에게 대만은 “오랜 옛날부터 거짓 없는 형제지방”일 뿐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³⁸⁾

그러나 김성환은 대만을 ‘우호 국가’, ‘형제국가’로 보기보단 기이한 ‘이국’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대만인의 생활 저변에 침윤된 반공주의에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를 오버랩 시킨 것일까?³⁹⁾ 김성환은 그동안 도시의 풍경이나 인물의 표정 등 생동감 있는 터치로 독자들에게 타국의 이미지를 전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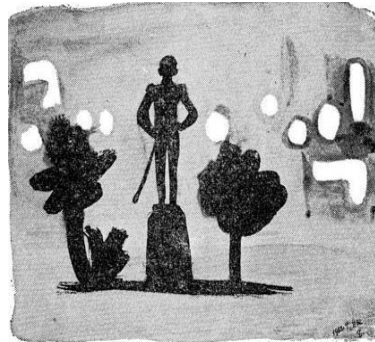


그림 19. 「臺北의 거리」, 『동아일보』, (1962.7.22.)

왔다. 비주얼텍스트로 대만의 첫인상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비주얼텍스트에 담긴 장제스 동상과 주변의 거리는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그림19) 김성환은 “신비화된 총통과 대북시민과의 관계”에 오는 장제스 정부의 불편함을 비주얼텍스트로 대신한 것이다.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거대한 광장들, 집권정부와 조직은 공식적인 공공장소 안에서 그 지위나 권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⁴⁰⁾ 김성환은 장제스 동상에서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힘의 표출”된 조형물을 발견한 것이다.⁴¹⁾ 신문소설의 삽화는 “소설 텍스트를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들

38) 송지영, 『自由中國의 今日』, 『自由中國의 今日 : 臺灣紀行』, 春潮社, 1958, 24~25쪽.

39) 일민주의는 “1949년 이승만이 제시한 ‘하나의 국민(一民)’으로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통치이념”이다. “경제적 복귀 증진과 정치적 지위 상승, 지역주의 타파, 남녀동등주의 실현 등 4가지 강령 아래, 이법석을 명예회장으로 ‘일민주의 보급회’를 결성하는 등 국민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고길섭, 『반공하는 삶』,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엘피, 2005, 94쪽.

40) 에드워드 렐프, 『장소의 본질』,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9쪽.

41) 에드워드 렐프, 『장소의 본질』,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9쪽.

까지 이미지를 통해 생생히 재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⁴²⁾ 비주얼 텍스트 역시 발신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텍스트를 해석하게 된다.⁴³⁾ 비주얼텍스트에 담긴 대만의 첫인상에서 독자들은 대만과 우리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대만의 첫 인상에서 드러나듯, 김성환과 ‘한국문화친선단’의 시각의 차이는 대만을 머무르는 동안 계속된다. 소설가 정비석은 “우리들의 이번 여행은 상대방이 맘대로 꾸며 놓은 스케줄에 의해서 완전히 피동적으로 움직인 여행이었던 만큼, 혹시라도 좋은 곳만 구경시켜 주는 바람에 정작 나쁜 곳을 모르게 되어, 대만의 참된 모습을 그릇되게 인식하는 일이나 없을까하고, 그 점을 매우 경계”하였다고 고백한다.⁴⁴⁾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대만이야말로 의심할 여지없는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강조한다.⁴⁵⁾

그러나 김성환은 대만을 우리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질적인 국가로 묘사한다. 그가 장제스 동상이 세워진 거리에서 대만의 기이함을 느낀 것처럼 일본어에 관한 대만인의 문화는 낯선 이국의 모습이었다. 그는 “대만인이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도 일본말을 잘하는 손님이 들어가면 대우가 한결 요란스러워진다.”고 언급하면서, 대만인이 “일본인에 대한 존경이 극진한” 것은 농촌 곳곳에 다리를 놓아준 일본의 선진 기술에 대

42) 공성수, 「근대 소설 형성기 신문연재소설 삽화의 구성 원리 연구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신소설 삽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83쪽.

43) 김은정, 「'위험' 주제 보도사진의 비주얼 텍스트 유형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42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5, 39쪽.

44) 정비석, 「汚吏도 먼지도 없어진 臺灣」, 『自由中國의 今日：臺灣紀行』, 春潮社, 1958, 51쪽.

45) 정비석, 「汚吏도 먼지도 없어진 臺灣」, 『自由中國의 今日：臺灣紀行』, 春潮社, 1958, 51쪽.

한 승배라 간주한다.⁴⁶⁾ 이러한 태도는 '한국문화친선단'의 일원이었던 소설가 이무영이 가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무영은 대만의 "거리에만 나가면 삼륜차부, 상점 할 것 없이 일어"인데, "내게는 대단히 편리하면서도 기이"하다고 언급한다.⁴⁷⁾ 그는 그들의 일어 사용에 편리함을 느낄 뿐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김성환과 비슷한 시기에 대만을 찾았던 김찬삼 역시 대만인의 일본어 사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곳 세관 관리들이 조사할 때 일본말로 물으며, 자기네들끼리도 일본말을 쓰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항일전쟁을 하였다든 장개석 정부의 통치 밑에 있는 관리들임에랴. 반공정신만 강할 뿐 일본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갖춘 모양이다."라 술회한다.⁴⁸⁾ 이러한 이질적 감정은 김병도의 기행문에서도 나타난다. 김병도 역시 "대만인들끼리 모이게 되면 일본말을 사용"하는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⁴⁹⁾ 그는 국민당의 '중국어 강제'에 대한 대만인의 굴절된 감정이라 분석하는 등 우리와 다른 문화로 간주했다.⁵⁰⁾ 한국의 경우, 정부 수립 당

46)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가다-대만의 농촌」, 『동아일보』, (1962.7.26)

47) 이무영, 『臺灣通信』, 『自由中國의 今日 : 臺灣紀行』, 春潮社, 1958, 139쪽.

48) 김찬삼, 「I. 동남아시아-風雲이 휩쓰는 자유중국」, 『끝없는 旅路. 2 : 續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어문각, 1965, 20쪽.

49) 대만을 방문한 김병도는 대만인이 "中國本土人이라고 하면 같이 석기어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氣色을" 발견한다. "臺北人들끼리 모이게 되면 日本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만난 臺北人青年은 "그들의 常例"라 전하며 2.28사건과 "國軍의 武力에 억눌리워 할말도 못하며", "二人以下만 모이게 되면 當局은 이것을 結社 組織嫌疑로서 주목하게 되니 現下 臺北人은 그 一舉一動에 벌써 자유의 포수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臺北人으로서 本土旅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도 有形無形의 制限을 바다 그 활동 좃아 자유롭지 못하다"고 토로한다. 김병도, 『排中の所致인가 아직도 日語使用』, 『新聞記者가 본 中國』, 문화사, 1950, 101~102쪽.

50) 일본의 식민지시기 대만의 일본어 보급률은 1930년에 전 인구 중 12%였으나 1944년에는 7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어 보급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전후(戰後)에 정부(국민당)가 일어 서적·잡지 발행 금지령(1946.2.12), 일어 신문 발행 금지령(1946.8.24)을 내리고 중학교에서 일어 사용을 금지시키고(1946.9.14.) 신문 잡지의

시 이승만 정권은 조선을 억압, 지배한 친일파와 제국의 법령과 통치기구를 대부분 이어받았고,⁵¹⁾ 일본의 침략이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는 2차 식민지에 대한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반일 정책과 함께 민족주의를 내세웠다.⁵²⁾ 이승만은 민족주의로 친일과 반일을 통합시킴으로써 식민지 기억과 일본에 대한 담론들을 지워나갔다. 김성환이 일본어에 거부감이 없는 대만인에 아연실색한 것은 한국이 식민지 잔재를 지워나갔던 것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인을 경외하는 대만인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문화친선단’이 남긴 기행문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출판물로, 대중을 규율하고 훈육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기행문에서는 부족의 고유한 특성을 잃고 일본이 그러한 것처럼 중국인(대륙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고산족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고산족은 마을 입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부족의 민속춤을 보여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고산족의 모습은 세속화된 스타였다. 이들은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대량 생산으로 내놓은 목각인형을 자신들의 토속

일어면 제작 금지령(1946.10.25)을 내려야 할 정도였다. 정부는 중국어 사용 금지 이후, 언어와 교육면에서 중국인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으나 그 정체성 확인 작업은, 대만인(과 대륙인)에 대한 심한 차별과 억압적인 정치 지배에 순치시키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민두기, 『대만사의 소묘』,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27~228쪽.

51)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人文科學』 제3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296쪽.

52) 이승만 정부는 반공과 반일이 결합된 쫓겨대회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대일경제단교와 일본왕래금지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해서 또 다시 침략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반일운동과 반공운동을 결합시키기도 하였다.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人文科學』 제3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296~307쪽.

품이라 속여 팔고 있었다. 식민지 하에서는 “일군의 특별 징용으로 남방산지 작전”에 끌려가 태평양전쟁에 징용되는 수난을 겪었던 이들이 지금은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⁵³⁾ 김성환은 부족의 특성을 잃고 제2의 식민지적 삶을 살아가는



그림 20. 『토인의 마을』, 『동아일보』, (1962.7.29.)

고산족에게서 연민을 느낀다. 고산족과의 만남에서 그들을 대하는 화자의 시각이 ‘하향식 이국취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문화, 인종집단이나 국가, 그리고 원시적인 생활 형태”에서 느끼는 “이국적이고, 낯설며, 이상한 것을 내려다보는 심리적”인 감정을 그들로 부터 느낀 것이다.⁵⁴⁾

대만 여행을 마친 그는 대만을 “외국인이 행세하는 독재정부”라 언급한다.⁵⁵⁾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 관계 속에서 경관은 공통의 믿음과 가치의 표출이자, 개인 상호간의 관계 맺음의 표현”이라 할 때,⁵⁶⁾ 김성환은 도시의 인상을 그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정서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만에서의 마지막까지, 그는 장제스 정부의 독재에 익숙해진 대만인들의 국민성을 의심하면서 그들에 대해 편치 않은 시선을 보낸다.

53)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 落穂餘瀝』, 『인간동물원』, 장학당, 50쪽.

54) 낭양,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21쪽.

55)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를 가다 落穂餘瀟』, 『인간동물원』, 장학당, 1965, 53쪽.

56) 에드워드 켈프, 『장소의 본질』,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6쪽.

4. 결론

이 글에서는 홍콩, 대만, 일본 여행 중 남긴 김성환의 이국체험기를 비주얼텍스트와 함께 살펴보았다. 김성환은 오랫동안 〈고바우영감〉을 통해 대중 독자들을 만났던 감각을 살려, 친숙한 비주얼텍스트로 이국을 재현했다. 한국보다 도시와 자본화로 발전한 도시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풍속을 전달하고자 했다. 각 도시의 시민의 모습은 한국의 독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국경 밖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과 세계성의 욕망을 해외 펜팔이 급증했고, 해외여행을 기록한 기행문이 대중독서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다양한 기행문이 출판되었지만, 일부 기행문은 독자들의 현실에 조응하지 못했다. 김찬삼의 기행문 경우, 그가 해외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이었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서민들과 달리 수월하게 세계 각국을 이동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한 지식인들이 남긴 기행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56년 ‘한국문화친선단’이 남긴 기행문은 김성환과 반대의 시각으로 대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대만의 반공주의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단, 반공으로 일체화된 국민과 그들의 애국정신을 극찬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대만인들의 정서에 의문은커녕 일본어로 인해 그들과 대화가 수월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식민지를 경험했던 한국 독자들의 보편적 정서와는 괴리된다. 엘리트 지식인의 출판물이 대중을 규율하고 훈육하려 했다는 것을 기행문을 통해서도 목도하게 된다.

김성환의 기행문은 대중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술하고 서민의 시각에서 이국의 모습을 풀어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의 만화적

감각을 살려 비주얼텍스트로 서사roman 전달할 수 없는 이국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독자를 만족시켰다. 또한 비주얼텍스트를 통해 화자의 문화적 호기심이 드러나는데, 도시를 이동하면서 다르게 나타난다. 홍콩과 대만의 식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나타난 차이를 탐구하고자 하는 충동이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엿보았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공포나 불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대만의 반공 정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⁵⁷⁾

‘고바우영감’식으로 풀어낸 월경한 비주얼텍스트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동안 낯선 단어였던 ‘해외여행’과 멀고 먼 나라로 그렸던 동아시아의 심상지리를 재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7) 낭왕, 『근대성과 국제관광』,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20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성환, 『고바우, 동남아가다』, 『동아일보』, (1962.7.9. ~8.12)
_____, 〈고바우영감〉, 『동아일보』, (1962.6. ~9.)
_____, 『인간동물원』, 장학당, 1965.

2. 논문과 단행본

- 고길섭,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엘피, 2005.
공성수, 『근대 소설 형성기 신문연재소설 삽화의 구성 원리 연구-『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신소설 삽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75-108쪽.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9-33쪽.
김병도, 『新聞記者가 본 中國』, 문화사, 1950.
김은정, 『‘위험’ 주제 보도사진의 비주얼 텍스트 유형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42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5, 37-46쪽.
김중철, 『근대 여행과 활동사진 체험의 ‘관람성(spectatorship)’ 연구-1920~30년대 기행문 속 활동사진의 비유적 쓰임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제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329-356쪽.
김윤태, 『한국현대사와 리얼리티』, 소명, 2001.
김찬삼, 『끝없는 旅路. 2 : 續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어문각, 1965.
닝 왕,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마샬 버먼,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11.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바네사 R. 슈와르츠,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서은영, 『한국 근대 만화의 전개와 문화적 의미』,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人文科學』 제30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293-320쪽.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 만화사 연구: 풍자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송지영 外著, 『自由中國의 今日 : 臺灣紀行』, 春潮社, 1958.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이병주, 『巴里紀行』, 철야당, 1957.
-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 임범중·이혁진·윤병국 공저, 『현대관광』, 삼광출판사, 2006.
- 오영숙, 『신생독립국의 자기인식과 아시아 상상-코스모폴리타니즘과 민족주의 사이의 한국영화(1957~1960년대)』, 『대중서사연구』 제16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0, 275-312쪽.
- 우정덕,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 고찰 :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5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0, 427-455쪽.
-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교양인, 2013.
- 테드 휴즈,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소명출판, 2013.

Abstract

1960s Visual Text on Overpassing a Frontier 'The Old Man Gobau'

Yeon, Yun-Hui (Dongguk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cartoonist Kim, Sunghwan (hereafter Kim) took the journey to Hong Kong, Taiwan, Japan, and to East Asian countries from July 1st to 27th of 1962. Kim took a trip to these countries as a foreign correspondent of 『DongAllbo』. He published 29 sets of travelogue titled as "Gobau Traveling to East Asia" from July 9th to August 12th.

Starting from 1955, Kim published "The Old Man Gobau" through 『DongAllbo』, criticizing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Rhee, Seungman's administration. Through "The Old Man Gobau" he criticized how Rhee's administration showed corruption, wrongful elections, and how citizens are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the Rhee's administration. Kim, who had deep connections with the readers for a long time later published a travelogue. He took an advantage of his comic skills and senses to match the eye-level of the general public and used exotic mood as a visual text.

From Kim's point of view, and what he had published through 『DongAllbo』 showed characteristics of visual text that readers should focus on. First of all, Kim had a meaningful connection with the readers through "The Old Man Gobau" and attracted many readers. From "The Old Man Gobau", Kim stood by the Korean citizens' point of view and tried to resolve the issues of Korean society through his exotic humor. While Kim was traveling, he wrote down some of the episodes that he had experienced and turned that experience from a readers point of view. Second, Kim's four-cut cartoons "The Old Man Gobau" and artwork of visual text showed characteristics of exotic moods and sensibility to the readers. Moreover, while Kim published, "Gobau Traveling to East Asia" he post "Traveling overseas" and put out a message "away" to the "The Old Man Gobau's" readers. While Kim was traveling overseas he published a travelogue from the beginning of his journey until he came back. Kim published odd stories to the readers and this brought reader's undivided attention along with humor.

In the 1960s, there was a variety of travelogues were published, but some readers were not able to connect travelogue with reality. Intellectuals who publish their travelogue would often try to teach readers. On the other hand, Kim's travelogue, rather than teaching readers or to give a lesson he used a technique of trying to meet their eye-level of criteria. Kim also focused his view of putting out a foreign place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Moreover, compare to prior travelogues and Kim's travelogues the difference was that prior travelogues would often use language text to visualize the foreign countries, Kim's travelogues inserted visual-text so that many readers can imagine beyond what is out in the foreign countries.

The "The Old Man Gobau" had its own attentiveness with humor and satire through visual text which gave many Korean readers a second thought of "overseas travel." It is noteworthy that Kim tried every aspect to reposition the images of East Asian countries.

(Key word: Society Cartoonist, Kim, Sunghwan, 'The Old Man Gobau', 『DongAllbo』, 「Gobau Traveling to East Asia」, Visual Text, Travelogue)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